

“조선 국행수륙재, 삼화사가 최초이다”

차장섭 교수, 학술발표회 통해 삼화사 국행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촉구

“국행수륙재는 개인의 천도가 아닌 사회 통합의 의미가 강하다. 삼화사 국행수륙재는 최초로 설행됐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역할을 담당했다.”

동해시가 지난 4월 정부에 삼화사 국행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삼화사 국행수륙재보존회가 7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삼화사 국행수륙재 학술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차장섭 강원대 교수는 ‘동해삼화사 국행수륙재의 배경과 전개’를 주제로 열린 주제 발표에서 국행수륙재가 삼화사에서 시작됐음을 주장하며, 삼화사 국행수륙재의 문화재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차 교수는 “조선시대 수륙재는 동해 삼화사에서 처음으로 설행됐다”며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고려왕족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동해 삼화사에서 수륙재를 거행했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이날 밤제에서 삼화사 국행수륙재에 대해 (태조실록)을 근거로 “조

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국행수륙재 설행을 통해 건국과정을 정당화하고 친고려 성향의 세력들을 포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태조실록〉 7권에는 ‘임금은 수륙재를 관음굴과 견암사, 삼화사에서 베풀고 매년 봄과 가을에 향상하였다. 고려의 왕씨를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되었다.

이중 관음굴은 강화도에 있으며 견암사는 거제도에 있다. 강화도와 거제도는 조선 개국 후 고려 왕씨 일족이 유배된 곳이다.

차 교수는 이중 삼화사 수륙재 만의 의미를 고려 마지막왕인 공양왕과 두 아들이 교살된 곳이란 점에 주목했다. 〈고려사절요〉에는 당시 공양왕이 태조 3년 갑술년(1394년)에 삼척부에서 요절한 내용이 나온다.

이와 함께 차 교수는 삼화사 국행수륙재의 배경으로 동해·삼척 지역이 조선왕실의 건국세력의 기반지역인 점을 들었다.

차 교수는 “삼척은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이안사가 17년간 머문 곳으로 삼척지역에는 목조 부모의 묘가 있을 뿐 아니라 삼화사에는 이안사가 손수 사경한 경전이 보관

돼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삼화사와 조선왕실의 긴밀한 관계는 조선건국 직후 최초의 국행수륙재 거행 배경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내내 왕실이 삼화사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이런 삼화사 수륙재가 사회통합과 불교대중화의 계기가 됐다고도 주장했다. 차 교수는 “태조는 고려 왕씨를 위해 관음굴 견암사 삼화사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수륙재 개최를 법칙으로 삼았다. 이는 오대산 상원사에 옮겨갈 때 까지 19년간 38회나 계속됐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후 태종 14년 오대산 상원사가 추가되지만 상원사에서 개최된 수륙재는 왕씨들의 원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장섭 교수는 상원사로 국행수륙재가 옮겨진 이후에도 삼화사에서는 사찰 중심의 수륙재가 지속적으로 개최됐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16-17세기 간행된 〈전지명양수륙재의찬요〉 2종이 삼화사에 소장된



것은 삼화사에서 수륙재가 지속적으로 거행됐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동해·삼척이 군사적 요충지로 전쟁으로 인해 희생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삼화사의 호국사찰로서의 성격과 사회통합의 기능을 미뤄보아 우리나라에서 수륙재의 전통을 가장 잘 간직할 사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류

소위 구성 재조사

9월 9일 재심사키로

신라, 고구려, 조선시대를 걸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화의 화려한 축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연등회(燃燈會)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7월 8일 중요무형문화재 심사위원회를 열고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을 보류, 9월 9일 재심사키로 했다.

이번 심사에서 일부 문화재 조사위원들은 연등회에 문화재 지정에 대해 미진한 점을 개선해 이에 대해 소위원회 구성하고 재조사키로 했다.

불교계는 불교계를 넘어선 의식이자 행사로 오래 전부터 국가 대표브랜드화와 공인을 요구해 왔다. 조계종은 2009년 문화재청에 연등회에 대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유는 고증과 재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불교계에서는 지난해 조계종이 문화재청에 신청한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무산되자 정부의 전통문화인식 확산

의 목소리가 높았다. 조계종은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술세미나 및 전통등 제작·전시회 등을 진행해왔다. 노력 끝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 이번 심사를 앞두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문화재청 소속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조사위원들이 연등회와 연등축제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현장실사를 벌였다. 5월 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연등행렬에는 32만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태스크 포스트 운영도 제안하기도 했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교문화재로는 제27호 승무, 제48호 단청장, 제50호 영산재, 제118호 불화장 등 4종목이 있다.

한편, 연등회는 황해도 고구려 고국원왕(재위 331~371년) 무덤 안악 3호분 벽화에 그려진 행렬도엔 등롱(燈籠)을 든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으며, 삼국사기에 신라 경문왕(재위 861~875년)과 진성여왕(재위 887~897년) 간등(看燈) 기록이 있는 등 오래된 민족 전통이다.

노덕현 기자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이재복 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흰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꼭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후, 항암치료 마치고신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썩~ 뿔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질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빛 살림 정골골요법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증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변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책신청 : 054)637-9810**